

## 구강암 (口腔癌)



김 용 각

### 구강암이란 무엇인가?

구강암은 입, 즉 구강(口腔)에 생기는 암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구강암은 10대 癌에 들며, 우리나라의 남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강암은 전신에 생기는 전체 암종의 3~5%를 차지한다.

보통 40대 이후의 남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강암은 주로 혀, 입천정, 혀 밑의 입바닥, 볼, 입술, 잇몸 등의 점막이나 귀밑 혹은 아래턱 밑의 침샘 등에서 발생되는데, 이중 혀에 생기는 설암(舌癌)이 가장 흔하고 또 생존률도 가장 나쁘다.

일반적으로 구강암은 악성도가 높은 편이다. 구강암 완치율은 50%에 못 미친다. 그러나 병기 1, 2기의 초기 구강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50~80%는 근치할 수 있다.

반면에 가까운 목부위의 임파절로 국소 전이가 있거나 구강에서 멀리 떨어진 폐·골 등으로 원격 전이가 이루어진 병기 3, 4기의 진행된 구강암의 생존률은 현저히 저하된다.

### 구강암의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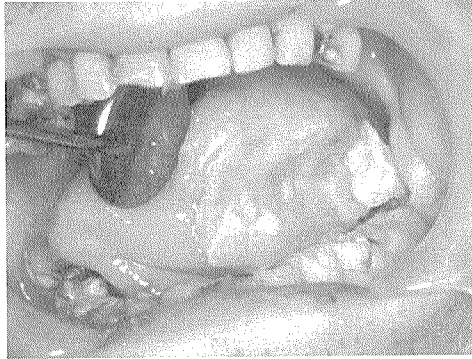
구강암의 발생원인은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혀 안하는 사람에 비해서 15배 이상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빈혈이 있는 사람,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매독 환자 등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또한 구강이 불결하고 잇몸병 등의 만성적인 구강염증이 있는 경

## 특집 / 치아 건강은 신체 건강의 척도

우에 잘 생긴다. 특히 잘 맞지 않는 틀니 등이 구강점막에 수년간 자극을 주는 경우, 이가 닳거나 부러지거나 또는 충치로 해서 칼날처럼 날카로워진 치질이 혀나 불점막을 장기간 자극하는 경우에도 구강암은 더 잘 발생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강암의 초기에는 아프지 않다는 것이다.

구강암의 경우 동통이 나타났을 때에는 대부분 상당히 진행된 경우이다.

### 구강암의 진단

### 구강암의 초기증상

구강암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구강암의 대표적인 초기증상은 궤양과 멍울이다. 구강점막이 헐거나 혹같이 경결된 부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구강 점막이 두꺼워진 다든가, 하얀색의 백반증이 생기든가, 입안에 출혈이 있다든가,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가 불편한 것 등은 구강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어느 경우에는 혀가 잘 움직이지 않고, 아래턱 운동도 불편스러워지며, 상용 사용하던 틀니가 불편해지기도 한다. 또 귀밑이나 목의 윗부분에 혹이 만져지든가, 부어 있다든가, 또 안면마비가 있을 때에도 구강암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구강에 생기는

암 중 혀에 생기는 설암(舌癌)이 가장

흔하고

생존률도

나쁘다.

(사진:

혀에 생긴

구강암,

구강위생이

불량하다.)

입부분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초기에 구강암을 발견할 수 있다.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이상상태를 쉽게 알아내어 구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의뢰할 수 있다.

구강암의 진단은 신체 타부위의 암에 비해서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경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조직검사이며,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촬영(MRI)도 진단은 물론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

### 구강암의 치료

구강암의 치료는 얼굴부위이기 때문에 외모는 물론, 말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기능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여 구강외과를 비롯

한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초기 구강암은 수술 혹은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하나 진행된 구강암은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의 복합요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수술법의 발달로 인접조직을 이전, 이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태이상이나 기능결함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악안면보철 등의 방법으로 심미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또 방사선조사로 초래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폐장치나, 치아 불소도포 장치를 이용하여 치아나 구강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여 준다. 이렇고서도 구강영역의 방사선 치료 후에는 함부로 치아를 뽑거나 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 구강암의 예방과 대책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생명이 걸린 구강암의 경우에는 안 걸리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나 구강암의 원인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방이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다음의 경우를 일상 지켜주면 적어도 구강암에 걸릴 확률은



입 부분은 쉽게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으므로 평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구강암은 얼마든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크게 줄어든 것이 다.

1. 항상 구강을 청결히 한다. 식사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하고 1년에 한번씩은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한다.
2. 자극성 음식을 피하며 육류보다는

야채, 과일 등 균형있는 식사를 한다.

3. 금연을 하고 과음을 삼간다.
4. 모든 구강병은 초기에 치료받고 만성적 염증상태가 없도록 한다.
5. 날카로운 치아, 잘 맞지 않는 틀니 등이 구강점막을 만성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틀니 등은 정규 치과의사에게 제작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한다.
6. 구강백반증 등 전암병소가 나타날 때에는 즉시 치료받도록 한다.
7. 장년 이후에는 1년에 한번씩 정기 구강검사를 받도록 한다. 정기검사 중간이라도 입안에 비정상적 상태가 인지되면 즉시 치과 진찰을 받도록 한다.
8. 초기 구강암으로 진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치료에 임하도록 하자. 또한 어느정도 진행된 구강암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는 자세를 갖자.

(필자=원자력병원 치과과장)